

English Worship Service

[Westminster Hall, 11:15 am]

[Pastor: Daniel J. Kim]

Prelude	Pianist
* Call to Worship	Pastor
Praise & Worship	Praise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AeSoon Jang (Kwonsa)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Genesis 2:18-25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Marital Union in God" (1)
* Hymn	604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Congregation
(* Please stand)	

"Marital Union in God" (1)

Genesis 2 describes how God created the first two humans and joined them together in marital covenant. The humans were created in God's image for fellowship with God and one another. Here, marriage signifies the most intimate form of fellowship in human society. From the beginning, the humans were meant to exist as communal beings, not isolated individuals. Thus, God declared,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and brought forth "a helper suitable for him" (2:18). Such a companion and partner can only be found in a fellow human being. "But for Adam, no suitable helper was found" among all living creatures (v.20). This "suitable helper" was specially created out of Adam's own rib (vv.22), so that Adam would recognize the individual as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v.23). Just as humans can realize their true identity only in terms of mirror reflection of God (imago Dei), they could realize themselves fully only as they reflect on one another. Such mutual reflection and interaction between humans are exemplified in the particular context of marriage, in which the two counterparts, male and female, are "united" and "become one flesh" (v.24) before God's presence. In marriage, then, the husband and wife are meant to complement one another and partner together for the sake of propagating the human race and serving the purposes of God here on earth.

Announcements

We warmly welcome all newcomers to our worship service.

We invite you to join us for fellowship at Room 104 after the service.

If you have any special prayer requests, please submit them in the prayer box located at the rear, so that we may continue to pray for you.

Sunday Study Groups are as follows:

9:30 am (Room 104) - Spiritual Disciplines and Intercession (led by Pastor Daniel)

1:30 pm (Outdoor Cafe) - Youth Bible Study (led by Brother Jimmy Eppley)

1:30 pm (Room 902) - Young Adult Bible Study (led by Pastor David John)

1:00 pm (Room 601) - Adult Bible Study (led by Brother Ranjan)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III,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웨스트민스터 홀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학교 예배 및 부서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예 배	오전 11시20분
유년부	오전 9시	701 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장 년 1 부	오전 10시	본 당			
유초등부 연합 2부예배	오전 11시20분	701 호	장 년 2 부	오후 3시30분	702 호			
꿈나무영어성품스쿨	오후 4시	701 호	소요리문답부	오전 10시20분	903 호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신앙강좌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어린이 수요예배	오후 7시	603 호	새가족부	원입반	오전 10시20분	602 호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전입반	오후 12시40분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세례교육부	1부	오전 10시20분	607 호		
청년 1부	오후 2시	1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청년 2부	오후 2시	101 호	직분자양성부	오후 12시40분	606 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1 호	새가족환영부	오후 12시40분	802 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유문건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임규현 심진희 정대은 장재원 전도사(교육담당) 구본혜 이진광 교수는 David John Khokhar 선교사 강아곱주하나, 김모세이하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바켓산, 박병연(카자흐스탄) 스톱로바마리아, 조남혜, (영글리데 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화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누인도), 정상진홍성인(말라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리(체코), 이재훈(바제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행영(러시아), 김인사(현해욱(아르헨티나), 홍남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림(미수(일본), 김나형 · 오정녀(캐나다), 김종일(백순미(타이(노동자), 홀쿠야 망 탕, 썬 코 카, 마이, 랄 사무엘, 레이, 난, 쌍 썬다 사우, 키움 랑, 흐라, 라비,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마카엘(미얀마) 필리본, 프로산토, 수레시 수버산, 이경섭 알로르 비사(루반도) 보디소프 린름 수만준(말라위) 김태식 윤영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택수(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 중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박 노 철
Senior Pastor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사도 바울, 그의 사명” (“The Mission of Apostle Paul”)

■ 행 20:22-24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궁극적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인생이 더 쉬워진다고 더 편해진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 어려운 일들을 끝까지 견디며 극복해 내는 놀라운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의 우리는 과연 어떤 목적,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근거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하나님께 확인해 보며, 하늘의 은총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1.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달려 갈 길이 있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고 이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결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2.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명의식으로 인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며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소명, 목적, 비전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사명받은 자’ 의 담대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을 찾아, 그 사명에 온전히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 넘을 수 있게 되고, 진정 의미 있고, 거룩한 기쁨과 평화와 승리를 얻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3.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엘리트주의’ 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 어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성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를 합니다. 혹은 내가 가난합니다. 그래서 대접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있지만 울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도 속으로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비록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도 바울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인생의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정황이 비록 다를지라도, 즉 주부만 주부로서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일터의 일원이면 일원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정황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준권 목사	최향열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서명철 목사	김금준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최차순 장로

인레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63:2-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42(시 98)··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184(173)··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엡 3:14-2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장학헌금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사도 바울, 그의 기도·· 박노철 목사
	(The Prayer of Apostle Paul)
* 찬 송 Hymn	539(483)··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 찬양대 헌신예배 -

오후 5시 인도: 임상헌 장로 설교 박노철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50:1-2, 6 인 도 자
찬 송	249 다 함 께
기 도	조정식 장로
성 경	대상 25:1-7 이동만 장로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찬양하는 사람들 설 교 자
특별찬양	연합찬양대
* 찬 송	31(46)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II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기 도	I부: 김필임 권사 II부: 김경진1 권사
성 경	삿 14:1-9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올무에 빠진 나실인 삼손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분당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언
설 교	박노철·유문진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분당 2층
설 교	박노철 목사

<p>◆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p>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차주연	임아름	윤주일	가브리엘		임아름
II 부	할렐루야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랜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류총기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병창	
찬양예배	은 빛	박래경	김현정 15	홍혜란	윤주일	오늘 찬양예배는 찬양대 헌신예배로 연합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수요 I 부	호 산 나	구민영	김현정15	홍혜란	특 별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진형	박승기	찬 양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

교 회 소 식

◆ 모 임

- 제2권사회 기도회 및 월례회 / 26일(수) 오후1시 웨스트민스터홀(101호)
- 22사단 진중세례식 / 29일(토) 오전6시30분 교회 출발(강원도 고성)
- 전 도 / 28일(주) 주일전도 : 전교인(1,2,3부 예배 후)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나가실 때 각 층 로비에 비치된

순례지와 전도지를 가지고 이웃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5일(화)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축호팀(대차삼성 도곡레이크 롯데캐슬 진달래 대치 I-park, 삼성동힐스테이트 개포주)

오전 10시 70인전도대 화요기도팀(609호)

26일(수)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수요기도팀(609호), 문서전도팀(603호)

오후 1시 70인전도대 특례생 학부모 기도팀(903호)

오후 1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노방팀 루디아 전도회(607호)

오후 8시 70인전도대 수요아카데미 스테리안(한티공원)

27일(목)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축호팀(은마, 미도 대치현대 역삼역키 개포주공,7단지, 래미안 대치 팰리스

오전 10시 70인전도대 목요기도팀 603호(11시 202호)

29일(토) 오후 3시 70인전도대 토요노방팀, 안드레 선교회(한티공원)

◆ 알 림

- 새가족 등록 /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호-칼빈홀)

- Baby-sitting 운영 / 수요예배와 주일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는 유아를 위해 403호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베들레헴 홀

- 영어동시통역 (통역: 김사라 권사) / 2부 예배 시 외국인을 위한 영어동시통역이 있습니다

동시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현장에서 안내위원들에게 Earphone을 받아 사용하신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arphones are available to help your service,

please ask an usher at the door to assist you☞ (Interpreter : Sarah Kim)

-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상담 주중에도 상담 가능 / 주일 오전 11시30분-오후 1시 (310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 의료 상담 / 정철웅(일반외과) 주일 오전10시3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902-5922

뒷면으로 계속➡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김미자3	1-26	사라	화평팀	박유미1	16-8	루디아	본인	권영재1	교육2국	중등부	김백겸
방소연	16-12	루디아	희락팀	김소라4	교육2국	청년2부	본인	김연준1	교육1국	영아부	본인
이향덕	16-8	안드레	본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앞면에서 계속

◆ 결 혼

- 이남영 군(이상구 전도사, 유서경 권사의 장남과 유윤지 양(4교구 유기찬 집사, 윤용미 권사의 장녀 /

10월29일(토) 오후1시 서울교회 웨스트민스터홀(101호)

◆ 장 례

- 故 임경희 권사(12교구 오민세 집사 부인) / 10월17일(월) 별세, 19일(수) 천국환송예배

- 故 이두원 성도(11교구 이흥기 집사, 이옥희 권사의 장남, 이승준 집사의 형 /

10월18일(화) 별세, 20일(목) 천국환송예배

🌳 제값을 다해야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름 값을 해야 한다. 포도나무는 포도열매를 맺어야 하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열매를 맺어야 한다. 추수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는 없이 잎만 무성해 있으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유명무실한 이들이 많이 있다. 명색은 신자인데 신앙은 찾아 볼 수 없다면 땅만 허비했다. 해서 주님은 이를 짝어 버리라 하신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자릿값을 해야 한다. 포도원 가운데 심기운 무화과나무는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니 주인에게 흡족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했다. 남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영광의 자리에 앉았으나 치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나이 값도 해야 한다. 3년 전에 맺어야 할 열매를 아직도 못 맺었다면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지 않은가. “주여! 이 가을엔 값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하소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